

정현이 "호주오픈" 첫승



호주 테니스오픈 1회전 올리보 3-0 제압...내일 2회전

US오픈 이어 메이저 2승

한국 테니스의 간판 정현(105위·삼성증권 후원)이 메이저 대회 단식 본선에서 개인 통산 2승째를 거뒀다.

정현은 17일 호주 멜버른에서 열린 호주오픈 테니스대회(총상금 5000만 호주달러·약 440억원) 이틀째 남자단식 1회전에서 렌조 올리보(79위·아르헨티나)를 3-0(6-2 6-3 6-2)으로 완파했다. 2015년 US오픈에 이어 메이저 대회 단식 본선에서 두 번째 승리를 따낸 정현은 64강에 안착했다.

1세트에서 정현은 게임스코어 0-1에서 연달아 5게임을 따내며 기선을 잡았고 2세트에서도 상대 서브게임을 일찌감치 브레이크하며 6-3으로 마무리했다. 3세트 들어 전열을 가다듬은 올리보가 정현의 첫 서브게임을 가져가며 반격하는 듯했으나 정현은 2-2에서 다시 연달아 네 게임을 가져와 1시간 45분 만에 2회전 진출을 확정했다.

정현은 이날 서브 에이스가 4개밖에 터지지 않았지만, 전체적인 스피드 향상과 코스 공략이 돋보였다. 첫 서브 성공률이 57%로 48%에 그친 올리보를 압도했다. 더블폴트 역시 정현은 1개

밖에 나오지 않았지만 올리보는 7개를 쏟아냈다. 서브에서 안정감을 찾은 정현은 이날 상대에게 브레이크 포인트를 두 번밖에 허용하지 않았고 서브게임은 3세트에 한 번 내준 것이 전부였다.

세계 랭킹으로는 정현보다 높은 순위인 올리보는 첫 서브가 제대로 들어가지 않았고 스트로크 대결에서도 정현에 밀리면서 이렇다 할 반격 한 번 해보지 못한 채 1회전에서 짐을 썼다. 올리보는 지난해 호주오픈에서는 2회전까지 오른 선수다.

2015년 워블던을 통해 메이저 대회 단식 본선에 데뷔한 정현은 그해 US오픈에서 본선 첫 승을 따냈다. 지난해에는 호주오픈과 프랑스오픈에 출전했으나 모두 1회전 탈락의 고배를 마시며 메이저 대회 단식 본선 성적은 2승 4패를 기록 중이다.

한국 선수의 메이저대회 남자단식 최고 성적은 이형택(41·은퇴)이 2000년과 2007년 US오픈에서 달성한 16강 진출이다. 본선 3회전까지 이기면 16강에 오르게 된다.

정현은 1회전 통과로 상금 8만 호주달러(약 7000만원)를 확보했다. 정현의 2회전 경기는 19일 열릴 예정이다. /연합뉴스

한국, 14년만에 동계아시안게임 종합 2위 노린다

삿포로 대회 한달 앞으로

선수 148명 등 230명 파견

북한·호주 등도 출전 신청

제8회 삿포로 동계아시아경기대회 개막이 30일 앞으로 다가왔다.

2011년 카자흐스탄 알마티 대회에 이어 6년 만에 열리는 올해 동계아시안게임은 일본 삿포로에서 2월 19일부터 26일까지 펼쳐진다.

동계아시안게임은 1986년 삿포로에서 1회 대회가 열렸으며 삿포로에서 이 대회가 개최되는 것은 1986년과 1990년(2회)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삿포로 동계아시안게임 슬로건은 ‘겨울의 감동을 공유하고 더 큰 꿈을 향해 앞으로 나아간다’는 의미의 ‘Beyond your ambitions’다.

6년 만에 다시 열리는 올해 동계아시안게임에는 31개 나라에서 1100명 정도의 선수가 출전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호주와 뉴질랜드 등 오세아니아 국가도 참가 신청을 마쳐 눈길을 끈다. 호주와 뉴질랜드 선수들은 개인 종목에 한해 초청 선수 자격으로 출전하며 메달을 가져갈 수는 없다.

인도네시아와 동티모르, 투르크메니스탄, 베트남, 스리랑카 등이 동계아시안게임에 처음 선수를 출전시킨다. 북한 역시 쇼트트랙과 피겨스케이팅에 출전 신청을 마쳤다.

빙상과 스키, 바이애슬론, 아이스하키, 컬링 등 5개 종목에 총 금메달 64개가 걸린 이번 대회에 우리나라는 선수 148명, 임원 82명 등 선수단 230여 명을 파견한다.

우리 선수단 목표는 금메달 15개를 따내 종합 2위에 오르는 것이다. 2011년 알마티 대회에서 한국은 금메달 13개로 일본과 동률을 이뤘으나

은메달 수에서 뒤져 종합 3위에 올랐다. 개최국 카자흐스탄이 금메달 32개를 쓸어들었다.

우리나라가 동계아시안게임에서 종합 2위에 오른 것은 1999년 강원 대회(금메달 11개), 2003년 일본 아오모리 대회(금메달 10개) 등 두 차례가 있었다.

스피드스케이팅 여자 500m 이상화를 비롯해 이승훈, 김보름 등이 금메달에 도전하고 심석희, 최민정이 이끄는 여자 쇼트트랙 대표팀도 금메달을 바라본다. 실상 종목에서도 스노보드 이상호, 크로스컨트리 김마그너스 등이 금메달 사냥에 나서고 남자 아이스하키, 컬링 등에서도 메달 가능성을 타진한다.

봅슬레이와 스켈레톤, 루지 등 썰매 종목은 이번 대회에 열리지 않는다.

개최국인 일본과 중국, 카자흐스탄 등이 메달 순위 상위권에 오를 전망이다.

/연합뉴스

염경엽 전 넥센 감독, SK 단장 됐다

프로야구 SK 와이번스가 염경엽(49·사진) 전 넥센 히어로즈 감독을 차기 단장으로 선임했다.

SK는 민경삼 전 단장의 후임으로 염 전 넥센 감독을 선임했다고 17일 공식 발표했다. 계약 기간은 3년이다.

광주일고와 고려대를 졸업하고 1991년 태평양 돌핀스에 입단한 염 신임 단장은 이후 현대 유니콘스를 거쳐 2001년 초 은퇴할 때까지 통산 타율 0.195의 성적을 거뒀다.

선수로서는 빛을 보지 못한 그는 이후 현대 운영팀 과장·수비코치, LG 트윈스 운영팀장 등을 거쳐 2012년 넥센 주루코치로 입단했다. 그해 김시진 감독이 시즌 도중 경질됐고, 염 감독은 뒤를 이어 2013년부터 넥센 지휘봉을 잡았다.

감독 첫해 넥센의 창단 첫 포스트시즌 진출을 이끈 염 감독은 지난해까지 4년 연속 가을야구에 성공, 지도력을 인정받



았지만 지난해 준플레이오프 탈락 직후 돌연 자진사퇴 의사를 밝혀 향후 행보를 두고 많은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다. 당시에는 SK 차기 감독

으로 내정됐다는 설이 많았지만, 결국 단장으로 SK에 합류했다.

SK는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본격적인 단장 선임 작업에 들어갔다”며 “야구에 대한 전문적인 식견을 갖고 있고 SK의 육성 시스템을 완성하고 현장에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원칙 아래 적임자를 물색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선임으로 선수 출신 단장이 또 한 명 늘었다. 올 시즌 프로야구 10개 구단 중 SK와 두산 베어스, 넥센 히어로즈, LG 트윈스, 한화 이글스 등 5개 구단은 ‘선수 출신 단장’이 이끈다. /연합뉴스

프로야구 FA 계약 마감일 폐지

KBO 리그 규정 개정 음주운전·도박 연루면 즉시 참가활동 정지

프로야구의 유명무실한 FA 계약 마감일이 폐지된다. 음주 운전·도박 등에 연루된 선수는 즉시 참가활동이 중단된다. 2017 시범경기는 팀 당 12경기씩 진행되고 올스타전은 대구에서 열린다.

한국야구위원회(KBO)가 17일 서울 도곡동 야구회관에서 올해 첫 이사회를 열고 야구규약과 리그규정 개정안, 예산안을 심의해 의결했다.

이사회는 ‘다음연도 1월15일’로 명시된 FA 마감일 조항을 삭제하기로 했다. 2010년까지는 FA를 선언한 선수가 1월 15일까지 계약을 하지 못하면 그해 리그에서 뛸 수 없었다. 이 규정 때문에 포수 이도형은 계약 실패 후 은퇴를 했지만, 법정 투쟁 끝에 1월15일이 지난 뒤 자유계약 선수로 공식돼 자유롭게 계약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꿨다.

1월15일이라는 FA 마감일이 유명무실해지자 KBO가 이 조항을 아예 삭제하기로 했다.

FA 선수와 계약한 구단은 다음 날 총재에게 곧바로 계약서를 제출해야 하고, 총재는 계약서를 받은 다음 날 공시해야 한다. 앞선 규정은 2일 이내 제출, 2일 이내 공시였다. 또 FA 승인선수로 공시된 뒤 미계약 기간이 3년 지난 뒤에는 자유계약선수 신분이 된다.

지난해 선수들의 도덕적 해이로 곤욕을 치른 KBO는 품위 손상 행위에 대한

제재도 강화했다. 경기외적인 품위 손상 행위에 기존의 인종차별, 성폭력 외에 음주운전, 도박, 도핑을 추가했다. 부정 행위 및 품위손상 행위 선수에 대한 제재가 결정될 때까지 즉시 참가활동을 정지할 수 있다는 내용도 추가했다.

정규시즌 동일한 성적의 복수 구단이 웨이버 선수 영입을 신청할 경우 전년도 성적 역순으로 우선순위가 정해진다. 연봉 3억원 이상의 선수가 1군 엔트리에서 탈락된 뒤 퓨처스리그에 등록될 경우 10일이 아닌 15일부터 감액되는 것으로 변경했다.

외국인 선수에 대한 세부 규정도 손질했다. 트레이드를 통해 영입한 외국인 선수도 추가 등록(2회 한정)에 포함되며, 웨이버 마감일(7월 24일)을 넘길 경우 8월 15일 추가 등록일까지 신분변경을 할 수 없다는 내용과 12월 31일을 재계약 기한으로 한 내용은 삭제했다.

국제 대회 참가 동기부여를 위해 WBC·프리미어 12·올림픽 및 아시안게임에서 성적에 따라 보상해주던 FA 등록일수를 성적과 관계없이 소집 기간 모두 인정하기로 했다. 이는 해외 진출 선수에게도 적용되며, 해당 대회에서 병역 혜택을 받은 선수는 제외된다.

오후 1시에 열리는 퓨처스리그 경기는 휴식기간 7·8월에는 오후 4시에 시작하며, 필요에 따라 오전 11시 및 야간 경기로 변경할 수 있다.

올해 시범경기는 3월14일부터 26일까지 진행되며 팀당 12경기 치른다. 7월 15일 예정된 올스타전은 대구 삼성라이온즈 파크에서 펼쳐진다. /김여울기자 wool@

KBO, 39개교 316명 설문 ‘아마야구 현황보고 II’

이른 변화구

과도한 훈련

잡은 경기 출장

이른 변화구 구사 시기, 과도한 훈련과 잡은 경기출장이 우리나라 고교야구 투수들의 주요 부상원인이라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KBO(한국야구위원회)가 17일 2016년 고교야구 전국대회 8강 진출팀 투수들과 2017년 프로구단에 지명된 신인선수 등 전국 39개 고등학교 총 316명의 투수들을 대상으로 부상 및 훈련실태 설문 조사 결과를 정리한 ‘아마야구 현황보고 II’를 발간했다.

이번 조사는 고교야구 투수들의 부상 원인을 점검하고 경기력 향상과 부상 예방을 위한 해결 방안을 모색, 건강한 야구 선수수를 육성하기 위해 실시됐다.

설문지는 해외 사례를 기초로 하여 개인적 특성 관련 8문항, 경기와 훈련 관련 45문항, 부상 관련 12문항 등 총 65개 문항으로 구성됐다. 설문조사 결과의 평가는 미국 스포츠의학연구소(ASMI)의 연구자료를 토대로 미국야구협회(USA

Baseball)와 MLB(Major League Baseball)가 발표한 가이드라인인 ‘피치 스마트(Pitch Smart)’를 기준으로 이뤄졌다.

조사 결과 국내 고교야구 투수들은 커브, 슬라이더, 싱커 등 변화구를 던지기 시작하는 시기가 너무 빠르고, 과도한 훈련과 잡은 경기출장 때문에 휴식기간이 충분치 않다는 점이 주요 부상 원인으로 드러났다.

보고서는 문제점 해결을 위해 투구 수에 따른 휴식일 지정과 준수 의무화, 체력 훈련과 재활운동을 위해 시즌 시작을 현행 3월에서 4월로 연기하는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제시하고 있다. 또한 선수, 학부모, 지도자들의 인식 변화를 위한 교육지원도 뒤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는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에 등록된 유소년 팀들과 야구관련 단체에 배포될 예정이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고교 투수 부상 원인